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합니다. 전쟁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에게 더 극심하게 닥쳐 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푸틴, 우크라이나 영적 항복까지 원한다!

RNS, 전 국무부 종교적 소수/약자 대사 닉스 테임스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내' 보도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지형은 러시아 침략자들이 지배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전투 공간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종교적 성향을 놓고 또 다른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한다면 종교의 자유는 많은 사상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리 계획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Putin is after more than land-he

wants the religious soul of Ukraine: Make no mistake, Putin is seeking full capitulation from Ukraine—both physical and spiritual).

RNS(Religion News Service)는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종교적 소수/약자를 위한 특별 대사로 봉직했던 닉스 테임스(Knox Thames)의 분석을 보도했다.



바이든, 첫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

미 언론, 커탄지 브라운 판사 지명의 배경/향후 예측 보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공식 지명했다. 잭슨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면 233년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를 전망이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잭슨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한 뒤 "전직 공립학교 교사들의 딸이자, 검증된 컨설턴트 구축자, 뛰어난 변호사, 유명한 법학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원 구성원 중 한명"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브라이어 대법관이 남긴 탁월함과 품위를 인정받을 만한 후임자를 찾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특출난 자격, 흠잡을 데 없는 성격, 법치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가진 후보를 찾았고,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후보를 물색해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너무 오랫동안 우리 법원은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면서 "저는 (대)법원이 특정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와 함께 미국의 모든 재능과 위대함을 반영

할 때이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언젠가 그들이 최고 수준에서 그들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을 공약했었고, 지난달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2월 말까지 별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와 함께 미국의 모든 재능과 위대함을 반영

(3면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국가로, 그 뿌리에 동방 기독교 정체성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세워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럽 국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로마가톨릭교도, 기독교 복음주의자, 이슬람교도, 유대인 등 많은 종교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4,3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인구는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며 주로 정교회와 동일시된다.



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들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도록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의 우크라이나 종교생활에 무엇을 의미할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재정향을 우려하는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나토 확장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종교 독립도 우려 사항이다.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의 도널드 투스크 대표는 소시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모스크바로부터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푸틴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항복이다. 결국 추구하는 항복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는 인도주의적 제약이자 인권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종교 자유에 대한 영향은 끔찍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국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선정했다.

(3면으로 계속)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떤 정동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을 주장하는 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된 정통성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방 기독교의 여러 표현이 내부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한쪽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그 우크라이나 교단인 우크라이나 정교회-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총대주교청 정교회다.

러시아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푸틴의 노력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러시아 정체성의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교회 언론(Orthodox Times)에 따르면 러시아는 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사용해 교회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 말에 우크라이나-키예프 총대주교가 러시아의 간섭을 두려워한 나머지 독립을 요청하게 된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권위 아래에서 스스로 제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화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더 큰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는 종교 독립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선회하고 있는 또 다른 예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측 즉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와 모든 관계를 끊고 정교회를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교전쟁은 당분간 배경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격이 시작된 수요일(2월 23일) 트위터에는 전국에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다른 비정통 기독교인들은 양측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주목했다. "러시아에서 탱크가 내려오고,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이 탱크



2면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푸틴초장 광덕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칼럼

브레이브 하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하리라. 잉글랜드군에 붙잡혀 죽어가던 스코틀랜드의 지도자 윌리엄이 온 힘을 다해 "Freedom!"을 외치던 그 장면 말이다. 13세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Brave Heart)"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선명히 기억되는 중세 전쟁 영화이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침공하여 폭정을 펼친다. 하급 귀족에 불과했던 윌리엄이 스코틀랜드의 저항군의 지도자가 되어 승리와 패배, 배반과 결탁 등의 반전을 거듭한다. 뛰어난 연기자 멜 깁슨이 열연한 윌리엄은 끝내 붙잡혀 죽

임을 당하지만 대부분 관객은 그를 패배자로 여기지 않는다. 영화로서 어느 정도 각색을 했겠지만 그를 브레이브 하트를 가진 진정한 승리자로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탈레반에 의해 곧 도탄에 빠질 국민을 팽개치고 빛의 속도로 도망간 지도자가 있었다.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짝산 도피 명분은 그가 남아 탈레반에 저항한다면 필시 국민의 희생을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무자랑 도주를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멋진 평화의 지도자라고 손뼉 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가 도망가면서 많은 돈을 들고 갔는데 중간에 미처 다 가져갈 수 없어 길바닥에 철철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한 사람들이 꽤 많았으리라.

어떤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든 전쟁은 참혹하다. 작금(昨今)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또 보고 있다. 전쟁은 러시아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브레이브 하트를 가진 또 한 명의 영웅을 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국민에게 항전을 요청하였다. 그는 국민에게 자신이 항복했다거나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인 줄 알고 했다. 그의 피신을 제안하는 외부 세력에게 내가 타고 피할 차 대신 내게 무기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서 회자(膾炙)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서로 연대하며 흔쾌히 돕고 있다. 부당한 전쟁에 대한 세계인의 외침이요, 한 지도자의 브레이브 하트에 감동된 자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시대가 어렵다. 온갖 싸움이 난무하는 시대이다. 물리적 전쟁도 영적 전쟁도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브레이브 하트임을 깊이 깨닫는다. 브레이브 하트를 가진 지도자가 어려울 때 자신의 희생 대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겠는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브레이브 하트는 단순히 용감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 안에 뚜렷한 비전, 청렴함과 지혜도 함께 있어야 진정한 브레이브 하트가 될 것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벌써 완료되었고, 국내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나라의 격랑이 더 심해질 터인데 누가 브레이브 하트를 품고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바라본다.

전통과 새로운 환경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 요구된다

리더십저널, IMD 교수진의 현 시대 리더십 점검사항 7가지 소개

과거의 통제형 리더십은 점점 사라지고 리더는 이제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경해 나가기를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과 오늘날 새로 등장한 스타일의 리더십은 어느 하나만 답이 될 수 없다. 좋은 리더는 두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Development)의 교수진 세 사람(Jennifer Jordan, Michael Wade, Elizabeth Teracino)은 전통적인 스타일의 리더십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명확히 대비되는 일곱 가지 포인트를 제시한다(Every Leader Needs to Navigate These 7 Tensions). 그들이 제시한 일곱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각 상황에 맞춰 두 스타일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이 구비돼있는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지 확인해나가야 한다.

1. 전문가와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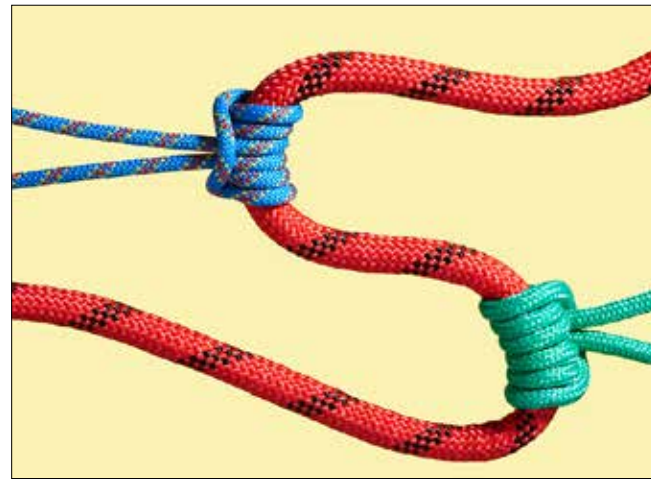
전통적인 리더십은 전문가형 리더십이었다. 한 영역의 일을 추진할 때 그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더 높은 리더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 모든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리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리더에게는 분명히 한 영역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학습자이며, 이제 학습자의 태도로 임해야 할 영역이 많음을 기억하며 두 가지

속에서 빠른 적응성을 요구 받는다. 새로운 정보를 열마나 빨리 반응하는지가 새로운 역량이 됐다. 이 두 종류의 리더십 역시 좋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너무 고리타분

고 잘 정리된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해 실천해내는 스타일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은 선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실무자에게 맡기는

전통적인 리더십은 주로 발화자의 역할을 요구했다. 다른 이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필요한 경우 적극성을 독려하기 위해 리더의 주도적인 발언이 강조됐다. 그러나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은 주로 듣는 것을 강조해 잘 듣는 역할을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권장됐다.

좋은 리더십은 자신의 관점도 명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발화자로서의 역량과 경청자로서의 역량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어느 한 쪽으로 쏠려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균형이루기...계속 배우고 적응, 구체화 하는 태도 필요 전통적 가치 중 지켜낼 것 찾는 직관적 판단력 요구돼

태도를 잘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도 영상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사역하기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서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겸허히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며 기존 사역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어떻게 새로운 세대에 맞는 기술 속에 녹여낼 수 있을지 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거나 너무 휘둘리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응성은 주로 구체적인 실천영역에서 발휘돼야 한다. 새로운 사역이나 주제를 받아들이는 역량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리고 지속성은 사람을 향해 발현돼야 한다. 새로운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일관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발휘한다면 설령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다가 잠시 실패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금방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우가 많아졌다. 두 종류의 리더십을 잘 융합할 때 사역의 "복극성"이라 할 수 있는 지향점과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역을 시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보고용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영역에서 구체화된 실천사항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더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메이커가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그 비전이 사역의 세부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점검하는 전술가의 역할 역시 함께 감당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

5. 권한 집약과 권한 분할

전통적인 리더십은 권한을 이양하기보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강력한 지시를 내리는 권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은 최대한 많은 권한을 분할하기를 권장 받고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리더가 주도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중간 리더십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들이 사역적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권한을 이양해주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 (4면으로 계속)

2. 지속성과 적응성

전통적인 리더십에서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중시했다. 좋은 리더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가치를 고수하는 리더들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빨리 변화하는 환경

3. 전술가와 비전메이커

전통적인 리더십은 명쾌하

4. 발화자와 경청자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university build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the School of Theology, degree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푸틴, 우크라이나...

(1면에서 계속)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성공한다면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정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정교회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도, 개종 단체에 대한 러시아의 퇴행적인 대우는 아마도 러시아 전역에 강제로 적용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푸틴의 홀로코스트 '착취'를 전쟁의 구실로 규탄했다. 24일 발표된 성명



에서 "박물관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인과 함께 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프로이센의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전쟁은 아마도 푸틴이 원했던 유일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종교 자유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영향은 균형에 달려 있다.

바이든, 첫 여성 흑인...

(1면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미 상원은 본격적인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책슨 판사가 역사적인 흑인 여성 대법관직에 오르기 위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책슨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미 하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돈 맥

인준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 자료에서 "책슨 판사는 역사적인 지명자일 뿐만 아니라 특출한 자격을 갖춘 지명자"라며 "상원은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청문회와 인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책슨 판사는 지난 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라이어 대법관의 법률서기와 워싱턴에서 연방 국선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책슨 판사의 지지자들은 더 많은 국선 변호사를 연방 판사로 앉히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할 때 책슨 판사가 적임자라고 주장해왔다.



"검증된 컨센서스(consensus) 구축자..." 스티븐 브라이어 후임... 상원 인준절차 남아

겐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할 만한 논쟁적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인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슨 판사를 선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양당의 상원 의원들의 조언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책슨 판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투표로 3차례나 상원에서 인준됐던 것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책슨 판사는 차기 대법관으로

당시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위원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하게 인준을 받은 바 있다.

51세인 책슨 판사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혀왔다.

책슨 판사는 지난 2013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워싱턴DC 지일 판사에 임명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올랐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미 연방대법원에 이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법원으로 평가받는다.

책슨 판사는 경력 초기에 브

책슨 판사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책슨 판사가 연방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3인의 진보 대법관을 재구성하면서 대법원을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책슨 판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제 삶과 경력, 이 나라와 헌법에 대한 사랑,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던 법치와 신성한 원칙을 지지하겠다는 제 헌신"이 미래의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론

겸손의 가치와 진정성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어느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한다는 광고가 올라오자 많은 청년들이 유명 인사의 추천장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장도 없이 면접을 보러왔던 청년이 채용되자 한 직원이 인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추천서도 받아오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사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가장 뛰어난 세 가지 추천장을 갖고 왔습니다.” 직원은 “저는 그 청년의 추천서를 접수한 적이 없는데요.” 이어 인사담당자가 말합니다. “그 청년의 추천장 3개는 첫째, ‘진정한 성품’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사려 깊고 정갈한 성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보고 주워 휴지통에 넣는 모습과 그때 눈에 들어왔던 그 청년의 단정한 옷과 정돈된 손톱을 보았습니다. 셋째, ‘배려하는 성품’입니다. 면접이 다 끝나고 다리가 불편하여 천천히 나가는 앞사람이 미안해하지 않게 물러서다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즉 그 청년의 몸에 밴 좋은 습관이 최고의 추천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오래된 생각과 심성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곧 습관이 됩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등 ‘습관’은 결국 인성의 조각들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쌓아온 지식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법입니다(떠온 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비평가인 존 드라이den (John Dryden)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요즘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비난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후보 부인들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까지 더해져 여간 낮 뜨겁지 않습니다. 공식 선거기간 동안 광화문 시청 서울역 광장 등등 후보들의 유세트럭들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들은 너무 심각한 소음공해여서 괴로울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버클리대학 언어학과 석좌교수이자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중 한 사람이고 정치 프레임 구성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전쟁에서 “모든 선거에서 가치가 정책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주 인기가 높을 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가치는 대략 ‘공정, 평화, 안전, 통합’으로 나타납니다. ‘공정의 가치’는 이미 폭로되어 공개된 대선후보들과 부인들 문제로 벌써 일치감치 무너져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평화의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올해 들어서만 8번째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의 가치’는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에서 오는 무력감과 단절의 심화 이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이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 민생 측면에서 처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통합의 가치’는 현대판 당쟁이라 빗대는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국민들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적인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국민통합의 가치’는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다른 모든 가치들에 우선합니다. ‘공정, 평화, 안전, 민생 문제’도 국민통합을 통해서만 더 효율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은 멈추지 않는 의혹들의 폭로와 공방과 변명들, 결집을 호소하며 거리거리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환호가 짝한 결사항쟁의 유세들, 서로가 흠집을 내려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드는 준비된 토론회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지지율을 살펴볼 때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만과 겸손의 사이클’입니다. 대선후보 누구이든 오만할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겸손할 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통합의 가치’는 ‘겸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 왔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이를 가장 뼈저리게 깊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대선후보들이 들고 나온 추천장을 봅니다. ‘학력, 경력, 스펙, 업적’ 등이 빼곡하게 적힌 추천장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추천장 없이 면접 보러온 청년’처럼 ‘진절하고 사려 깊고 정갈하며 배려심이 강한 성품’ 등 몸에 밴 좋은 습관들이 삶의 인성 조각들이 대선후보들의 최고의 추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추천장은 ‘겸손’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없이 변하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비굴하기까지 한 ‘딤서비스’ 그리고 후보기간에만 넘적넘적 잘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삶으로 살아내어 쌓아온 덕이 들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지속성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그리고 당선 전후가 같은 ‘겸손’입니다. ‘진정성’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이자 이상일까요? 최인인 저희들이 이리 100%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리 살아보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대선후보들에게서 ‘통합의 가치’로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pastor.eun@gmail.c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지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구불구불, 곡선과 같은 인생길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쪽 뺨은 직선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멀리까지 시야가 탁 트여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런 직선 도로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감과 안전감이 있고, 운

전하기가 수월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연결되어서 길을 잘못 들어도 우회전을 네 번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길 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동부의 오래된 도시

들에는 구불구불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좁고 커브가 심한 길, 불빛도 충분하지 않은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들은 운전하기 어렵고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또한 도로들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참 동안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길에는 직선 도로에 없는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는 ‘직선은 사람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곡선이었던 자연을 인간이 직선으로 만들었다는 그의 주장처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그

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곡선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도 구불구불한 곡선입니다. 곡선의 길이 굴곡이 많아서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많고, 좁고, 운전할 때에 열광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구불구불 인생의 길도 굴곡이 많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불쑥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듯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구불구불 인생길에는 예기치 못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먼

저, 그 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언제든지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생길에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한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좁고 커브가 심한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빛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조금함을 내려놓고 구불구불 인생길의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목적 지향적인 삶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삶, 관계 지향적인 삶의 소중함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구불구불한 우리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곡선의 자연을 즐기십시오. 또한 구불구불 나의 인생길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푸/른/초/장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이다. 히브리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장에서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히브리 동사는 추상적이지 않거나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성경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9절이다. 쉐마의 원형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마(שמע)인데, 이 단어는 hear(듣는다), understand(이해하고 깨닫는다), obey(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동사이다.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 샤마-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되게 잘 사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복되게 사는 진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이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솔로몬왕이 선친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

하셨다. 그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이해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즉,

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게 되어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된 것이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지 못해 나라가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이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지도자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가 있고, 부모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돌아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생명의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22:17-18)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8하). 여기서 준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샤마” 즉 들었다는 말이다. “

다. 사람이 영생을 얻고 또 복되게 사는 길은 바로 샤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나온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3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나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여기서 청종하다는 말은 영어로 earnestly obey라고 번역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의 히브리어의 원형이 앞에는 샤마의 부정사형이고 뒤에는 샤마의 미완료형이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들어야 하고 미래에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사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출애굽기 3장 7-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탄식과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말을 참 잘 듣는다. 한의원에 가도 마찬가지로. 진맥하고 집을 놓고 약을 지어주면 그대로 잘 따라한다. 그런데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듣는 마음-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revkwak@gmail.com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13절



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지혜의 왕이 되었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다.

솔로몬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 여기서 ‘듣는’은 샤마의 분사형이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듣는 마음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은 곧 분별하는 지혜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인 것이다.

솔로몬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노역을 너무 많이 했고 세금도 너무 과중했으니 그것들을 좀 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욱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르호보암왕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버거운 노역을 시켰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

호보암처럼 너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려고 한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려고만 한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듣는 마음은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들었음이니라.”

쉐마-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 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요 5:24).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

전통과 새로운 환경...

(2면에서 계속)

6. 직관과 분석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의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은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중시한다. 분명히 외적인 환경이 급변했기에 직관

에만 의존하다가 계속해서 현실과 어긋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데이터로만 사역의 결정을 내리다 보면 기존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를 잘 융합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분석은 사역 공동체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행하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결정은 직관에 따라야 한다. 소그룹이나 부서 사역의

구체적인 수치는 지속적으로 수집해 전체 방향을 결정할 기반 자료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 이뤄지되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을 결정할 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정해 나가야 한다.

7. 완벽주의자와 촉진자

전통적인 리더십은 사역의 완성도를 강조한다. 새로운 형태

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공동체 구성원, 특히 다음 세대의 사역 동참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해야 할 촉매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완성도가 부족할 수 있는 영역을 보조자의 역할로 감당하며 결에서 완성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일곱 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리더가 자신이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계속 배우고 적응하며 구체화 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과거의 빛나는 가치들 중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직관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미 리더로 세워지셨다는 것은 이러한 역량이 내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상 속에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배우며 그 속에서 전통의 유익을 잘 녹여내는 담대한 리더가 돼야 한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오바마의 '성혁명' 정책 10년 이후 미국의 현주소는?

십대 아들이 여자가 되기 위한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학부모 권리를 박탈시킨 캘리포니아 판사!

미국 전역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Pro-SOGI(성별 및 젠더 혁명) 정책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녀의 성별 및 젠더에 크나큰 악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성 혁명에 앞장서는 주(States)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시애틀, 오리건이며 동부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입니다. 중부는 주로 대도시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던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공립학교와 미디어, SNS, 심지어 가족 영화라고 보는 디즈니 채널과 주류 언론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은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젠더이데올로기(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자체가 이상한 것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안에서는 젠더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가정, 학교, 교회, 회사, 엔터테인먼트 등)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20개가 넘는 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정치정책을 세우고자 싸우고 있기에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계속 눈감고 모른 척한다면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훤히 알 수 있는 결과가 되겠지요.

심지어는 법을 객관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캘리포니아 법정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학부모들의 권리는 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상태는 법정을 다루는 판사들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판사(California Superior Court Judge) Joni Hiramoto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가진 십대 아들이 성전환을 위한 흉문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iramoto(히라모토) 판사는 아들의 아빠인 Ted Hudacko(테드 후닥코)에게 케이스와는 무관한 질문들을 여러 개 했는데, 그중 몇 개는 아이의 아빠가 어떤 "젠더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 몇 개의 가설을 다음처럼 내놓았습니다.

1. "만일 당신의 아들 Drew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스스로가 잉글랜드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겠는가?"
 2. 당신은 성전환이 죄라고 믿는가?
 3. 당신의 아들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갖지 않았기를 바라지는 않는가?
- 아이 아빠는 판사의 극히 감정적으로 치우친 질문들에 부모다운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아빠는 "물

론이다! 또한 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도움 사람 찾겠다"는 답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말도 안되니, 다음처럼 답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 아들이 생식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수술을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라고.

학부모 권리를 빼앗긴 아빠의 가슴 아픈 심정!

하지만 이런 답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히라모토 판사는 후닥코가 부모로서 십대 아들의 생식력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대아들이 남성에서 여성이 되는 수술을 학교의 선생들, 카운슬러들의 도움을 통해 지역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계획이 잡힌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빠인 후닥코는 지금 겨우 십대 청소년기를 지나며 성전환 수술과정을 통하게 될 자기 자녀를 보러 가거나 이야기할 권리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물론 이 십대아들은 공립학교의 지난 10여 년간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정책들로 인해 수없이 더해지고 확장된 동성애/트랜스젠더 교육들을 통해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동성애 운동가 교사들과 카운슬러들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들까지 버리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이 후닥코 아파라면 어떠시겠는지 아마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히라모토 판사는 가족의 인생을 좌우할 판결에서 십대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의학/심리적 연구 자료를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신념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케이스는 미국의 모든 학부모들과 교회리더들을 경악시키고 깨우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법체계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광풍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권위 기관들까지 이미 반기독교 정치인들(캘리포니아는 주로 민주당)이 통과시켜놓은 법안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단체 사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미국의 법체계와 부모의 권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맞서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부모들의 권리는 진보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더 심하게 돌이킬 수 없이 통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가들의 휘둘림에 견고히 맞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양의 탈을 쓴 거짓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기독교 좌파들의 젠더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열심히 올바른 정보를 받아 배우고 주위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제도적 기초와 캘리포니아 법체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한 남자와 약혼 중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심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약 6개월 후에는 약혼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약혼자가 나와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원래 부모가 과거부터 불교 집안이어서 현재로서는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에서 Miss Lee

A: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인 결혼 문제는 믿는 사람과 하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서로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 달라서 잘 통하지 않기에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다가 하더라도 이제 신앙을 얻어 열심히 믿음생활하려고 하면 결혼할 남편도 마땅히 신앙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필수요소입니다.

약혼자를 전도해 결혼은 꼭 믿는 자와 해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6:14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리고 신명기 22:10-11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같이 말며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함께 나귀를 겨리하여 농사하면 소는 천천히 나귀는 빨리 가게 됨으로서 뺨뺨 돌면서 전혀 받을 갈 수 없습니다. 양털과 베실을 섞어 짜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약혼자와 결혼하려면 반드시 약혼자를 결혼 전에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권고하고 약혼자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교회의 목사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결혼은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약혼자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거부하거나 교회나가기를 질색한다면 약혼을 파약할 것까지 각오하십시오. 아직 약혼은 결혼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생을 같이하기로 굳게 약속한 것이 아니기에 강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을 가질 것을 약속하는데 결혼 후에는 그 서약을 파기하기를 잘하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생명이며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신앙 없는 자와 결혼해 행복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6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340-1(131-231)</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ran.org Tel: (82)2-492-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양양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정향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p> <p>Tel: (031)877-6383~4 Fax: (031)877-6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인교회</p> <p>담임목사: 윤진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695, 39-349-339-1726 39-06-943-9678(고양시) V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p> <p>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608)</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9-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이상욱</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9-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이상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89-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p> <p>담임목사: 최영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 (110-280) 서울시 중랑구 인성동 137번지</p>
<p>시은소교회</p> <p>담임목사: 김철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안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기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942-1989, 사택: (011)82-2-942-1989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박영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개포동 17길 29(잠실동) www.sincheon.or.kr</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박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p>	<p>안암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명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 오후 8:00</p> <p>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3길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토요일은 제외)</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강남 장원동 신산구 불광동 415 www.yanggok.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9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8)</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신일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일기도: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중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최형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저녁 9:00 새벽기도: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성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현오</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p>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1. 최창덕(1892/3-1977)

최창덕은 서울 당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1892년 9월 25일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1893년 11월 14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영어이름은 Chang Duk Choy로 썼다. 그런데 '신한민보' 1921년 10월 6일자에 하와이에 거주하던 최창덕이 최창덕으로 이름을 고친다는 광고를 내면서 '창덕으로 행세하오니 지극한 조항해 달라고 한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는 1915년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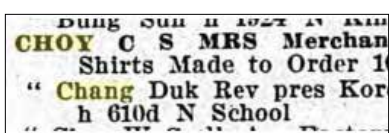
와일루아 한인기독교회

최창덕은 1923년에 오아후 섬에 있는 와일루아한인기독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해 한글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을 역임했고 교사 1명이 2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해 7월에 하와이 감리교회 한인부에서 어학교과서 편찬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위원장에 김이재, 서기에 이원순, 재무에 로진국이었고 위원에 최창덕 외에도 이태성, 엄달욱, 현 순이 있었다.

오아후 섬의 와히아와 한인기독교회 초대 담임목사였던 박동완 목사의 초청으로 1924년에 최창덕 목사는 와히아와교회가 운영하던 한글학교에서 시간제로 가르쳤다. 그해 11월 23일 오전 11시 반에 와일루아교회에서 김상연의 장남 요한과 박성근의 차녀 세디의 결혼식이 있었다. 이날 최창덕이 주례했다. 예식을 마친 후에 참례한 100여 명은 김상연의 자택에서 배설한 잔치음식을 나누며 즐겼다. 그날 27일 저녁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연례와 같이 일반 교우는 자기 정성대로 감사하는 물건을 드렸는데 음식이 그중에 제일 많고 돈으로도 바치고 닭으로도 바쳐 형형색색 보기도 좋았거니와 예배를 드린 후에 상 위에 진열하였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에 게 일용할 양식을 이저러 후히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기념하였다.

최창덕이 민찬호와 더불어 1925년에 한인기독교회 한인선교부 총부장으로 활동했다.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평신도 연회가 1926년 1월 초에 회장 최창덕의 사회 하에 호놀룰루교회에 있었다. 이날 호



1928년도 전화번호부

향교회 민찬호, 힐로교회 이명우, 학갈나우교회 안시흠, 마우이교회 장 봉이 모였다. 그해 하와이 한인교민단 총단장 선거에서 최창덕과 김영우가 후보로 나왔는데 김영우는 도미했으므로 자연히 최창덕이 피선되었다.

그해 최창덕이 한인기독교회 한인선교부 연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김성기, 안영찬, 이명우, 김영기, 최홍우, 전경준,

1923년 와일루아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한글학교서도 가르쳐 한인기독교회 한인선교부 총부장, 와히아와한인기독교회 주일학교 교장 한중동맹단 조직시 서기로 피선 독립운동 참여,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

민찬호와 더불어 한인선교부 이사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해에 민찬호는 한인선교부 총부장이었다. 그해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연회가 열리는 동안 매일 아침 기도회가 있었고 성만찬도 있었으며, 그날 10일에는 감옥과 병원에 있는 한인들을 찾아 위로했다. 한인선교부는 각 교회 남자교인이 3달라, 여자교인이 2달라의 연회비로 운영되었고 '한인기독교회'는 별도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최창덕은 그해에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 총단장에 선임되었고, 1928년에 재선되었다. 그해 2월에 조소앙 등 하와이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족통일촉성회'를 조직했다. 회장은 조소앙의 형인 조용하가, 서기는 한인교민단 총단장이었던 최창덕이 맡았다. 그해 9월 '대한민족통일촉성회' 주최로 국지기념회가 누아누 청년체육실에서 각 단체 대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흥미 있는 순서는 없었으나 나라를 위하는 애국열성이 많았다. 이날 최창덕의 사회 하에 신지수가 기도하고 안원규가 개회사를 말한 후 조용하가 나라만국역사를 진술하였으며 안정숙 부인이 '망국한'이란 주제로 연설한 후 이상초가 '조선민족의 장래'라는 주제로 장황하게 웅변했다. 활동은 미약했지만 '대한민족통일촉성회'는 하와이 한인사

회의 통일운동 전개에 하나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1929년 1월에 하와이한인기독교회 평신도 제11차 연회회가 본 교당에서 있었다. 회장 최창덕과 서기 신중현의 사회 하에 여덟 명의 지방 목사가 모여 교회에 관한 긴요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다.

와히아와 한인기독교회

1930년에 최창덕은 와히아와에서 거주하면서 양복 수선업에 종사했다. 그해 6월에 농촌학생대회가 열렸다. 1년 전에 강영각의 주선으로 조직된 농촌학생회는 그동안 각 방면으로 진보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연중대회를 와히아와 지방에서 소집했다. 90명 회원이 각 방면에서 모여 오후 4시에 개회하고 6시까지 연회로 모였고, 8시부터 졸업식 만찬회로 모였으며, 8시에 유가가 있었다. 일반 학생들에게 장쾌한 기상을 준비하여 당시 동포들은 50원을 거두어 대회 경비에 사용했다. 이 모임에서 최창덕을 비롯하여 황해수, 강영복, 박동완, 안창호, 이동빈이 권면하는 말씀을 전달했고, 농촌학생회 음악대도 참석하여 청아한 음악으로 큰 흥미를 끼쳤다.

그해 11월에 와히아와에 있던 한인감리교회와 한인기독교회가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준비하고 밤에 모여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다. 그해 12월에 호

와 홍치범과 함께 와히아와기독교회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좌·우측 임원들과 수차 교섭하였으나 그해 11월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1932년 6월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치안유지 방해죄로 피납되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와 기타 각처 동포가 기부하였는데 최창덕은 10달러를 기부했다.

이듬해 3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와히아와 지방 동포 약 400명이 상동리 예배당에서 모여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개회한 후 애국가를 합창하였으며 안창호가 기도하였고 사회자 임성우가 취지를 설명한 후에 최창덕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 후 국어학교 학생 배 영이 장가를 하였고 오 윤이 연설하였으며 감리교회 국어학교 학생이 장가를 하였고 강영각이 영어로 '만주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구락부원이었던 조 미가 장가를 하였고, 안창호가 연설하였으며, 최선수가 독립 기념금 모임을 소개했다.

신한민보는 1933년 4월 6일에 하와이군도 각처에 산재한 미주 대학출신 33명의 성명과 학위와 직업을 소개했다. 최창덕은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외는 이승만 철학 박사 정치사업, 민찬호 문학과 교회사업, 양 윤과 강영복과 김유택과 신상근 의학박사 의사 영업, 정원현과 하수명

방에 있는 두 한인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선주의 사회로 박동완 목사가 기도한 후 강영각이 영어로 연설했으며, 안창호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삼일기념금 수봉이 있는 후 박기탄과 이미주님과 전숙경과 위디도가 연설했으며, 두 교회 찬양대의 찬양과 구락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하와이 6,000동포 가운데 애국심이 가장 많은 최병선이 국민회 부활운동을 전력으로 정신과 재정으로 돕고 있었는데 그해 8월에 동지회 인사들을 포함하여 호놀룰루의 한인사회 인사 50여 명을 자신의 아이아 농장에 초청했다. 음식을 대접하며 '사회를 붙잡아 민족의 행복을 지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명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였다. 연설한 자 중에 이정진, 박종수, 안창호, 박동완, 홍한식, 조병요, 강영각, 이태성, 오윤, 최선주, 안원규, 민찬호, 조석진, 홍치범, 김경옥, 정원명, 김윤배, 이종관과 함께 최창덕도 있었다.

와히아와는 하와이군도 중에서 호놀룰루 다음으로 한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한인사회나 교회가 날로 힘있게 발전하며 청년사회의 진보가 한인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1년 전에 강영각의 주선으로 조직된 청년연합회는 한인감리교회와 한인기독교회의 청년을 통합하여 민족적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였는데 회원이 100명에 이르렀다. 1935년 6월에 회장에 문덕만, 부회장에 위디도, 서기에 김길리, 재무에 김버니스였고, 교문은 강영각이었다. 최창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동참했을 것이다.

최창덕은 1938년에 박동완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시무하는 와히아와한인기독교회의 주일학교 교장을 맡았다. 당시 주일학교 학생수는 120여 명이었고, 본 교회에는 유아세례자 121명과 성인 세례자 47명을 포함하여 교인 수는 200여 명이었고, 국어학교 학생은 50여 명이 있었고, 국어학교의 1년 전 지출 예산은 556달러 28센트였다. 예배당과 그 부지는 4,500달러에 해당했다.

그해 8월에 최창덕은 동지회와 국민회의 합동을 위해 노력했다. 이듬해인 1939년 2월에 하와이에서 '한중동맹단'이 조직될 때 그는 서기로 피선되었다.

1940년에 최창덕은 라디오 방송을 상점에서 지배인으로 활동했고 그의 부인은 양복수선을 하면서도 한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1942년 2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2년 4월에 최창덕은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와히아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징집서류에 따르면 48세였던 그는 168cm의 키에 체중은 65kg이었고 얼굴에는 검은 점이 여럿 있었다.

최창덕은 1977년 12월에 하나님의 부르름에 응했다. 한국정부는 2014년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한기독교회는 위대한 지경에 있었으나 박동완 목사가 주장하는 와히아와기독교회는 전보다 더 확장된 모양이었다. 최창덕이 민찬호와 홍치범과 함께 교회 일에 협력하기 때문이었다.

1931년 최창덕은 김성기, 안시흠, 이종관, 민한옥, 민찬호, 조석진, 백낙현, 이승만, 김성기, 최성대 등과 함께 한인선교부 9인 이사원이었다. 9인 이사원은 1/3이 목사이고 2/3은 평신도로 구성했다. 그해 삼일절 기념식은 와히아와 지방에 있던 두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한인기독교회 예배당에서 있었다. 공동회 회장이었던 오 윤이 개회를 선언한 후 강영각이 영어로 취지 설명을 하였고, 안창호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박동완 목사와 안창호 목사가 연설한 후 최창덕이 기도했다. 이날 장가는 두 교회 여학생들이 연합으로 했다. 그날 저녁에 농촌학생회에서도 삼일절 기념식을 미국감리교회에서 2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회장 최호성의 사회로 개회된 이날 기념식에서 최창덕은 민찬호와 안창호와 함께 '삼일정신'에 대한 문제로 연설했다. 고문 강영각은 일반 회원들에게 책임 있는 권면을 하였으며, 음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였다. 이날 있었던 삼일절 기념식은 활동사건으로 활용하였다. 최창덕은 민찬호

과 박영호와 김요한 치과의사, 강영각 문학과 교육사업, 김찬제 건축학 건축업, 이영우 신학사 자기 사업, 정의조 문학과 청년회 서기, 안순남 문학과 교육, 류진석 문학과 자기 사업, 이용직 문학과 교회 사업, 김현구 문학과 사회사업, 한영찬 문학과 교육, 정성복 문학과 자기 사업, 서기운 제약과 제약업, 김영기 문학과 토지매매업, 양재영 공학 공작, 이시조 기계학 공작, 정문성 문학과 자기 사업, 김노디 문학과 교육, 황해수 문학과 여자 청년회, 정내리 문학과 서기, 조프루라 문학과 교회일, 김이스벨 문학과 교육, 이세라 문학과 교육, 양정숙 문학과 살림이었다.

그해 8월 19일 밤에 와히아와한인기독교회 교인 50명이 와일루아 공원에서 미주로 유학갈 흥젠스를 전송하는 소상 순서를 마련했다. 동 교회 담임목사 박동완이 전별사를 담당했고, 최창덕은 이동빈과 최선주와 함께 권면했으며, 이에 흥젠스는 감사하였다.

그해 성탄절을 맞아 와히아와기독교회는 400명 농촌 교우들이 모여 최창덕의 사회로 주일학생들이 준비한 성탄순서를 진행했다. 이날 이곳의 한인감리교회는 500명이 모여 청년들이 저작한 '큰 구세주'라는 연극을 시험하였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1934년 삼일절 기념식은 와히아와 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e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 M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찬양: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3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 예 배: 오전 6:00(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6554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 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 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한), (254) 501-4933(국) 1000 E. Veletr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850) 4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oma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말씀과 땅 (4) - 시편 104편과 창세기 1장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란 맥락에서 인지하게 된 성경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표현되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따라 창세기 1장을 읽고자 할 때 우리가 펼쳐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4편이다. 창세기 1장이 31절에 걸쳐 하나님을 창조의 유일한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편 104편은 35절에 걸쳐 하나님을 피조물로부터 송축 받으실 유일한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선포는 ‘나’를 일깨움으로 시작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시104:1a).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시편 104편으로 자리를 옮겨 그 빛을 “입으시”는 창조주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창세기 1장 7-8절의 역사는 시편 104편의 문맥에서 하늘에 성막을 치신 역사로 깨달아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한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어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며 땅에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다(창1:9-13). 이 창조의 역사는 시편 104편 저자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를

하는 기름과/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104:9-15).

이렇게 땅과 물의 경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만드신 생명체를 지키고 가꾸시며 사람의 얼굴의 윤곽과 마음의 기쁨, 힘을 살피시고 자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러한 지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넷째 날의 창조 역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라는 선포를 계속 이어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해가 돌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

창1장-31절 하나님을 창조의 유일한 주체로 서술 시104편-35절 하나님을 피조물에게 송축 받으실 유일 대상으로 선포

라”라는 한 문장에 그 장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듯이 시편 104편 1절 역시 장 전체에 걸쳐 다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1절에 요약해 담고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시104:1b).

시편 104편 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접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며 그 분께 왕의 “존귀와 권위”가 속했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 지식은 곧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시104:2a).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신 창세기 1장 3절의 역사는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시104:2b-3a).

여기서 ‘휘장’(yari ‘a)은 다름 아닌 성막의 휘장을 가리킨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ešer yari ‘öt, 출26:1; 그 외 출26:2, 8; 민4:25; 삼하7:2; 대상17:1).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 거하실 장소로 짓게 하신 성막, 또 그 처소를 수축하며 견고히 세우고자 할 때 “들보”를 얹어 짓게 한 성전(대하34:11)과 관련된 표현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늘을 만드심이 곧 그의 궁극 성전을 지으신 것임을 시편 104편은 밝히고 있다.

존 D. 레븐슨(John D. Levenson)의 발제 이후로 성막건축과 창조기사 간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근래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시편은 이미 그 옛날 구약시대에 그 연관성을 규정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사이의 경계가 지켜지도록 주장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 못하게 하시며/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104:9).

그런데 그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물과 땅 사이에 경계를 완전히 단아두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열어 물로 하여금 땅을 적시게 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니/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니/각종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들나귀들도 해갈하며.../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사람의 얼굴을 윤곽하게

고하는도다”(시104:19-23).

산과 바다를 넘어 해와 달까지도 생명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을 받든다는 말씀이다. 심지어 흑암, 즉 밤하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지식은 시편 저자로 하여금 창조주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게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흔히 성경은 현대 과학 이전의 저술이어서 지동설을 날게 했다고들 한다. 하지만 시편 104편과 함께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성경은 지구를 천체의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그 중심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창1:18), 시편 저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탄성을 내게 하였다.

(9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피서픽대학교 교수)

잃어버린 영혼

지난 성탄절에 딸에게 선물을 받았다.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찾는 것도 어렵고 해서 가족끼리는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도 선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서운했는지 “별 것 아니에요”라며 딸이 조그만 박스를 건넸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다. 귀도 안 뚫은 엄마에게 귀걸이를 주다니 늦은 나이에 귀를 뚫어야 하나 생각했다. 딸은 “엄마,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서 예뻐서 샀어요. 잃어버리지 말고 잘 하세요”라고 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오십 살 되던 생일에 아이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서 선물로 목걸이를 주었다. 그런데 그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장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걸이를 잃어버린 후에 알았다. 누가 들으면 웃겠지만 나는 다이아몬드인지 유리인지 잘 구별을 못한다. 그냥 예쁘게 반짝거린다고 생각할 뿐이다. 딸부자 집에서 다섯 언니와 함께 자랐지만 엄마도, 언니들도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결혼식 때도 남편과 함께 서로의 이름을 새긴 금반지를 주고 받은 것뿐이니 다이아몬드를 자세히 관찰할 일도 없었다.

아이들이 사 준 목걸이를 했던 날,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러서 치료를 받았다. 목걸이를 빼라고 해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와보니 목걸이가 없었다. 집에 오는 길에 마켓에 갔었는데 아마 차 열쇠를 꺼내면서 가방에서 빠져 나온 것 같다. 그 때는 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던 때여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 엄마 오십 살 생일이라고 정성스럽게 사준 것을 엄마가 길에 떨어뜨리고 왔으니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딸이 크리스마스 때 목걸이를 사주면서 이제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2주 전에 학교 일로 분교에 방문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면서 딸이 사 준 목걸이를 하고 갔다. 분교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컴퓨터를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목걸이가 없었다. 아마도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목걸이가 느슨하게 채워져서 떨어진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차에 떨어져 있었지” 생각했다. 회의를 마치고 차에 가보니 없었다. “그러면 집에 떨어져 있었지” 하고 집에 도착해서 차고부터 시작해서 방까지 열심히 바닥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곳에도 목걸이는 없었다.

갑자기 딸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질질한 엄마가 또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아침에 움직인 동선을 따라 꼼꼼하게 찾아보아도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딸에게 면목이 없어서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똑같은 것을 하나 주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별 기대 없이 아침에 방문했던 분교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학생들이 파크장에서 목걸이를 주었다고 가져오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알겠노라고, 아무도 안 갖고 와도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5분쯤 지난 후에 직원이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목걸이를 찾았다고 전화가 왔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온 몸에 긴장이 풀렸다. 잃었던 목걸이를 찾고 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생각났다. 열 드라크마 중에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이 마치 딸이 준 목걸이를 찾기 위해 차 안과 차고, 집안 마루바닥을 꼼꼼히 살폈던 내 모습 같았다. 상품 가치로 본다면 그다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사준 것이기에 그 목걸이가 귀했다. 그래서 마음을 풀이면서 열심히 찾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의 영혼의 가치는 작은 다이아몬드에 비할 수 없이 귀하다. 그렇게도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함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걸이는 기도 리스트에 있는 믿지 않는 친척, 형제들을 생각하게 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한 그들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그 날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다짐한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르침례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양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강단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인생특별사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4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등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20	어린이개혁교회 담임목사: 유승혜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s: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 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리델리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 금, 토) 5:30(토) 금요송배기도회: 매일 셋째, 첫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45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월-야)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하와이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민 선교사 1. 멕시코 법학 석사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화감독 리들리 스콧은 그 Hawk Down)에서 미국은 전의 영화 '블랙 호크 다운(Black 쟁터에 나가있는 미국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다"(No one gets left behind)는 표현으로 영화에서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추락하게 된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 추락된 블랙호크에 탔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들이 블랙호크를 타고 구출하려 갑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미국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를 겪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몇 명의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병사들에게는 죽은 사람일지라도 버려지

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전쟁터에서 죽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두려움에 싸여있을 때 결코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병사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속절없이 우크라이나가 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고국을 피신할 것을 권고하고 도와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땅, 고국에 남아서 싸우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용기는 절망과 불안에 있던 국민들을 단결하게 하여 결사항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나라의 병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하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놓였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

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과 잃었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yosupbois@hotmail.com



밴쿠버중앙장로교회 직분자를 위한 말씀세미나에서 유충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믿음과 책임의식으로 사명의 길 가라

밴쿠버중앙장로교회 직분자를 위한 말씀세미나

밴쿠버중앙장로교회(담임 김현 목사) '직분자를 위한 말씀세미나'가 지난달 20일 열렸다.

김현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하재청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범수 집사가 찬양했다.

이날 유충식 목사(본 교회 원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신33: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충식 목사는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가나안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이다.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영광의 같이 되셔서 우리를 소중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

는 첫째 믿음이야 한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책임의식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책임을 지고 사는지 점검해야 한다. 밴쿠버중앙장로교회는 이민교회

초기에 세워진 장자교회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역사회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협력하는 종들이 되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사명감당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준비해두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주님 바라보며 남은생애동안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섬겨 함께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후 김현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유충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말씀과 땅

<8면에서 계속>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시104:24).

다섯째 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1) 하신 역사를 두고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그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주께서 지으신 리위아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시104:25-26).

고대인들이 크고 두렵게 여겼던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영역이며 그 안의 생명

의 금잔디'를 불렀으며 출연자들과 함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체도 다 창조주 하나님이 두신 것이라는 지식은 다시 한번 시편 저자를 놀라게 했다. 땅과 밤하늘을 포함해 깊은 바다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창1:25)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창1:27-28). 이 창조 역사에 대해 시편 104편 저자는 다음의 시각을 더한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주께서 손을 편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시104:28-29).

즉, 창세기 3장 이 편에서 여섯째 날을 보고 있는 것이다. 혹, 이러한 관점이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제한적 요소를 더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그 사건 이전의 시각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현대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찰되어지는 현상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는 과학이 관찰할 수 있는 타락 이전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104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여호와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시104:30-31).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그 결과로 땅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태하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실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약속이 창조역사에 이미 배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기에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시편 104편 저자의 고백과 다를 수 없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로다"(시104:33-34).

그리고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시104:35).

spark4@gordonconwell.edu

테너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연주회

테너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연주회가 2월 27일 저녁 6시 온마음교회(Hollywood Lutheran Church, 김종환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박인수 교수는 "팬데믹 아래에서 놀려왔던 삶을 오늘 연주회를 통해 모두 떨쳐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미경, 이지은, 최은향, 메조소프라노 김영순, 원순일,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백동휘, 바리톤 장상근, 조준석, 피아노 김주영 등이 출연해 가곡과 오페

라 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박인수 교수가 '옛날



테너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연주회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사주든한교회, 남가주사리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정로교회, 베델인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종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한성개혁장로교회 설립30주년 및 성전봉헌 감사찬양예배
 한성개혁장로교회(담임 송호민 목사) 설립 30주년 및 성전봉헌 감사 찬양예배가 3월 6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주소는 168 Lexington Ave, Cresskill, NJ 07626.
 ▲문의: (201)725-4117

자녀양육 워크숍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자녀양육 워크숍(72기)이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 30분(미동부시간) 줌 온라인으로 열린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와 패밀리터치 전문 스태프이며 특별디스카운트 수강료는 100달러(교재비 25달러 별도).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은퇴한 배현찬 목사 '선교적 교회' 세미나 인도

주예수교회(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설립목사인 배현찬 목사가 지난해 은퇴한 후 워싱턴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아시아인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서 '선교적교회 목회론'(쿠팡)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배현찬 목사는 21년전 주예수교회를 설립해 선교적 교회로 성장시키며 4회에 걸쳐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미국장로교(PCUSA)교단 최초로 사회선교상을 수여한 주예

수교회의 사역을 끝으로 39년의 이민목회를 마무리했다.

교회는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교회공동체를 신앙으로 세우고 성장시켰으며 둘째, 본당 교육관 사회선교관 등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축하고 셋째, 선교적 교회의 모형교회로 세미나와 출판물을 통해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 까지 영향을 미친 공로를 감사했다.

배 목사는 미국장로교한국인교회 전국총회장, 연세대 초빙교수,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대표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기아대책 미주본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락처: (804)980-0645, 이메일 hyunchanbae@hotmail.com.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목회자세미나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제 KACWA 제13기 목회자세미나, 강사 박용돈 목사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KACWA)가 주최한 제 13기 목회자세미나가 2월 22일 저녁 6시 줌화상으로 열렸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회장 이진아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와 LA, 텍사스 등지에서도 참여한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강사 박용돈 목사를 소개했다.

박용돈 목사는 현재 조지아 예수교회 담임과 미주세계선교회(AWMA) 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드웨스턴 침신대원을 졸업하고 순복음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침례교단 최조미 육군 최초 동양여성 예비역군목, 오클라호마 미국감리교회 담임, 미국 태평양아시아아메리칸의 달 행사 강사(1998), 미국 세계를 위한 여성기도의 날 오클라호마 주강사(1993), 애틀랜타여교역자협의회 회장 UPCA동남부 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국 영부인들”(그들의 신앙과 삶)이 있다.

이날 박용돈 목사는 “오직 성령충만으로”(롬5:19-21, 마 28:18-29)라는 제목으로 강증과 함께 강의를 진행했다.

박 목사는 어릴 때부터 방언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소망했는데 받지 못했다. 30여년 후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받았는데, 내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해졌다. 성령충만은 방언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물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여자는 목회하려면 결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을 때도 받고 난 후에도 주변에서 찬반이 많았다”며 미군목으로 사역할 때의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박 목사는 “처음에는 동양여성 군목으로 3가지 strikes, 1) Female 2) Minority 3) Language Barrier로 고난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1)God's Favor 2)I am with You 3)General Human Nature로 바뀌었다. 또 첫 목회지에서 여성 담임목회자로서 성찬, 침례, 결혼주례, 장례집도 등에 문제를 삼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돈 목사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성령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적용해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날 흑인 사역, 우크라이나 선교, 중국선교 등에서 나타난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진아 목사 사회로 기도 김성영 목사, 성경봉독 하정민 목사, 강의 박용돈 목사, 광고 백금숙 목사, 치유 및 축복기도 박용돈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 교역자들의 헬로우십 도모한다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창립총회, 회장 유상열 부회장 이재덕 목사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가칭, Korean Pastoral Fellowship of New York) 창립총회가 2월 24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에 유상열 목사, 부회장에 이재덕 목사를 선출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한 참가자들과 정기총회 준비를 해온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족하지만 믿고 맡겨주었으니 임기동안 성실하게 단체의 기초를 세워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부회장 이재덕 목사는 “목사로서 상식과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엔 교계를 보니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한다. 안타깝고 괴로웠다. 마지막 헌신과 섬김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한재홍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이규형 목사의 개회기도 후 한재홍 목사가 경과보고를 했다.

한재홍 목사는 “뉴욕목사회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완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모임”이라며 “헬로우십 즉 섬김, 공정의 순수한 모임”

이라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이 회를 이끌어갈 '반장'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또 “이 반장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자기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이 회가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호 목사가 회장에 유상열 목사, 부회장에 이재덕 목사를 추천했으며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했다.

회장 부회장의 인사 후 축사에 나선 최길중 목사는 “회를 폄하하면 안된다. 여러분들을 보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며 “답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전파 정신이 이 연합회를 통해 계승 발전되기 바란다. 선배들을 통해 닦아놓은 목회자 요람에 서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치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며 겸손하게 섬기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연합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모든 필요한 결정은 임원단에 일임하기로 하고

업달호 목사 폐회 및 오찬 기도로 마쳤다.

한편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유승례 목사, 특송 박근수 임정규 목사(색서 폰 연주), 설교 한재홍 목사, 축도 허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자기 정욕대

로!”(유1:17: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누는 것은 쉬우나 연합은 어렵다”며 뉴욕교계 상황을 설명하고 “교협, 목사회 분쟁은 증경회장들의 분열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목사들이 경건을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살고 있다. 목사도 천국 가야할 것 아닌가?”라며 “해결책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역단체 2곳 후원, 현지시역자에 초청장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박이스라엘 회장 선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이스라엘 목사를 선출했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전직회장들이 쌓아놓은 사역들을 잘 이어가겠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1부 예배는 조상숙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전희수 목사, 축도 박이스라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믿음의 정상에서 만나는 축복”(창22:1-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생활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증진을 이룬다”며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닦힌 믿음의 3가지 시험지는 1)떠나는 시험(1절) 2)약속을 믿지 못하고 낙심함으로 하갈을 아내로 맞음 3)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받치라는 명령으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절대적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2부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한필상 목사의 개회기도 후 박진하 사무총장의 사업보고, 전희수 목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2021년 회계보고는 △아동결연: 수입 33,325달러, 지출 23,340달러, 잔액 9,985달러 △일반계정: 수입 10,300.18달러, 지출 3,589.86달러, 잔액 6,710달러로 보고됐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유상열 목사가 박이스라엘 목사를 회장으로 추천하고 만장일치 박수로 받았으며 감사에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에 박진하 목사가 유임됐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와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 구스타보 전도사의 미국방문 비자발급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

또 지역단체인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와 뉴욕 선교사회의집(대표 최문섭 장로)에 각각 1천 달러씩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등 제3세계 아동결연을 통해 빵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동 1명 당 한 달 후원비는 30달러다.

▲후원문의: (917)620-8964 박진하 사무총장, breadngospel@gmail.com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김성국 목사와 은퇴직원, 교역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50주년 향한 비전 계획 선포

퀸즈장로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가 설립 48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50주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김성국 목사는 “은혜 받아 충성한 교회, 비전 받아 전진하는 교회”라는 50주년 표어를 갖고 회년을 준비한다”며, “디모데후서 4장의 키워드인 '은혜' '충성' '비전' '전진' 4가지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사모하며 50주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념사업으로 스핀즈장로교회 역사다큐 제작 △역사 기념관 오픈 △장학사업 △감보디아 국제학교 오픈 △다민족 사역의 이론 정립과 발표 △다민족 연합찬양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는 지난 48년간 복음의 역사를 이뤄왔다. <12면으로 계속>

2022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퀸즈장로교회는 이날 차세대 위한 장학금 수여와 임직식 등을 하며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자막을 띄우며 교회내 다민족 회중들과 함께 진행된 설립기념예배에서 담임 김성국 목사는 “믿음의 문을 여시다”(행14:27-28)라는 설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에 앞장선 안디옥교회를 소개하며 “고 장영춘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퀸즈장로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합성을 잊지 않으리’

103주년 3.1절 남가주 연합단체 기념식

광복회 미주남서부지회, 미주예총미술협회, 세계문화예술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 103주년 3.1절 연합단체 기념식이 ‘그날의 합성을 잊지 않으리’라는 주제로 삼일절인 3월 1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103주년 3.1절 남가주 연합단체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준배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적인 정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한분한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민족이다.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단합된 힘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치는 계기가 오늘을 기하여 다시 한번 재점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모국의 발전과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일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어나가는 일에 크게 함께 기여하기를 다짐하는 3.1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브강 LA한인회 부회장 사회로 열린 기념식은 박성근 목사 개회기도했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 클라라 신(공영기

획 시선 대표)이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했다.

이어 장미라 광복회 회원이 독립선언서 낭독, 김준배 광복회 미주서남부지회장, 제임스안 LA한인회장이 환영사를 했

다. 이어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존리 LA 12지구 시의원 이사로 축사했으며, 이승우 민주평통LA 회장의 축사를 배국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이사장이 대독했으며, 차만재 박사(흥사단 고문)이 축사했다.

이어 최석호 거주하원의원이 광복회 신임회장과 전임회장에게 공로증서를 전달했으며 김준배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이 장미라 광복회 회원과 장영원 회장 후손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시선 공연팀의 3.1절 뮤지컬, 이화여고동창회 합창단, 코행가 어린이 합창단 등이 공연했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QT를 통한 시장작 교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QT를 통한 시장작 교실을 4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갖는다. 수강생들의 수료 시작품과 시전 동인들이 함께 드리는 ‘시로 드리는 예배’는 4월 18일에 갖게 될 예정이다.

▲문의: (818)590-6469

감사한인교회 설립39주년 기념부흥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설립 39주년 기념 부흥회가 ‘본질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담임).

▲문의: (714)521-0991

올투게더 인 러브 합창단 모집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들을 섬기고 있는 비영리단체 Altogether in Love에서는 Dr. Clara Lee 웰드미션대학 음악교수를 지휘자로 합창단을 개설하고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교수는 클레어먼트 대학원에서 연주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Dr. Lee Music Academy” 원장,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지휘자, 올 투게더 인 러브 시니어센터 합창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보체 합창단: 여성시니어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발성호흡 기초부터 지도한다. △하모니아 코랄: 일반 혼성합창단,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기초부터 전문 성악까지 지도한다. 모임장소는 723 S. Euclid St, Fullerton(Dr. Lee’s Music Academy)

▲문의: (213)761-2785 dr.claralee.sop@gmail.com

통근통독 일독학교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이 주최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통근통독 일독학교’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정은 △LA 27기(화 오전반: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 강사 남승우 목사는 3월 1일부터 6월14일까지 △OC17기(수 저녁반: 저녁 7시-9시30분, 강사 정소진)는 3월 2일부터 6월15일까지 △OC17기(목 오전반: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 강사 김민섭 목사는 3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LA27기(토 오전반: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 강사 정성희 전도사는 3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다. 등록비는 150달러(재수강자는 120달러).

문의: LA27기 화요일반(562)569-1189, OC17기 오전(714)310-5270, OC17기 저녁반 (909)762-4596, LA27기 토요일반 (562)822-0935.

세미한교회 선교부흥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선교부흥회가 3월 11일(금)부터 3월 13일(주일)까지 열린다. 이번 선교부흥회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다. 일정은 11일(금) 오후 7시, 12일(토) 오후 7시, 3일(주일) 주일예배.

▲문의: (972)446-0178

담임목사 청빙

세리토스 소재 소망장로교회가 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 Div. 이상)을 졸업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사역을 5년 이상 한 자 △PCUSA 소속 또는 PCUSA 가입과 이중언어(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시민권,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PCUSA Form PIF): PIF Download, <https://oga.pcusa.org/section/mid-council-ministries/clc/personal-information-form>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목회 비전/계획서 및 신앙선언문(2페이지) △추천서 2통(목회자 또는 장로, 이메일과 전화번호 첨부) △최근 설교 3회분(동영상 file 또는 Link),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6개월내 가족사진 첨부)다. 서류는 이메일(hopepcusa1@gmail.com) 혹은 우편메일(소망장로교회, 참조: 장빙위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19319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로 3월 10일(목)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hopepcusa1@gmail.com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중앙이 송경원 담임목사)

복음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되라!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2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송경원 목사는 “교회 모든 스텝들이 베풀어주신 친절과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님 섬기는 방식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위에 피 흘려주시고 하나됨으로 부르셨으며 주님오실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훈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취임감사예배는 데이빗거스 목사와 정용교 목사(한인남침례회 국내선교부)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날 총회장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트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마16:13-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경도 목사는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한 교인들의 기도 응답의 열매”라며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첫째 하나님의 연단, 둘째 징계의 권한, 셋째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고난의 시기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다. 하나님은 고난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신다. 타코마침례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걸어왔다”며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세상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함임을 알고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첫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동체, 둘째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인들의 축하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청빙위원장이 청빙과정 소개, 문창선 원로목사가 교회를 위한 권면,

랜디 아담스 목사(서북미남침례교 주교회 상임이사)가 축사했다. 이어 제프 로고 게이트웨이 신학교 총장, 팀 비젤(Church Planting Catalyst of Upstate NY), 길영환 목사(미션포인트교회), 최성은 목사(지주촌교회)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 취임패 및 화환 전달, 송경원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송경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미한교회 회복집회에서 이기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세미한교회 회복집회, 강사 이기원 목사

세미한교회 회복집회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27일 윤대완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린 집회는 전정윤 집사가 기도했으며 에벤에셀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날 이기원 목사(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요15: 5-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기원 목사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수 없는 존재이며 누구든지 관계 맺으며 살고 있다”며 “가장 기쁜 때가 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 나의 관계”라며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준이며 출발이기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깊은 교제가운데 있으면 다

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진 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려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셋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다. 하나님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기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설립 18주년 감사예배에서 맹남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행함으로 복 받는 자가 되라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설립18주년 감사예배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임시당회장 김동현 목사) 설립 18주년 감사예배가 2월 20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강대우 장로 인도로 이날 11시에 시작된 예배는 조상욱 장로가 기도했으며 황초희 자매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맹남용 목사가 ‘복의 단계를 알자(눅5: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맹남용 목사는 “아멘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은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 아멘을 통해 축복받기 원할 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말씀에 확신할 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면 아

멘이 넘쳐야 한다”고 말했다.

맹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며 신앙적으로 아멘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속에서 복과 축복을 알아가는 것이 아멘”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야 한다”며 “설립주일을 맞아 안디옥교회는 첫째 불신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물질을 드리는 교회”라고 말했다.

그는 “아멘은 3가지, 입술로 하는 아멘, 마음으로 하는 아멘, 행함으로 하는 아멘이 있다. 입술로 하면 마음으로 움직여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맹남용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성령 충만으로 성공자 돼라

OC단체장 기도회, 설교 신원규 목사

OC(오렌지카운티)단체장 기도회가 2월 28일 오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OC교회 협이사)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불렀으며 김생수 장로(OC장로회 회장) 기도, 신용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신원규 목사가 ‘나는 성

령의 사람이다(엡5: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원규 목사는 “우리들 삶의 중심 속에 예수그리스도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가 메시야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시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생명이며 성공과

실패가 없다. 우리 모두는 성공자다. 예수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요 오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한마음기도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심상은 목사가 ‘OC지역 단체장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인도 했으며 △박용일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세계평화를 위하여’ △박상목 목사가(OC교회 직전회장)가 ‘OC교회, 목사회, 장로협의회, 전도회연합회 사역을 위하여’ △김종대 장로(OC장로회 1대 회장, 전 OC한인회장)가 ‘교포 사회와 한인회, 지역 기관의 단체의 발전을 위해’ △박대근 목사(IUTS학장 및 교수, 전 재미고신 총회장)가 ‘신학교와 교육단체를 위하여’ △김정환 목사(산미니스트리 대표)가 ‘선교단체를 위하여’ △박재만 목사(OC교회 부회장)가 ‘한인정치인들의 활약과 전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윤성원 목사(OC교회 4대, 12대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167개국에 2만2210명 선교사 파송

KWMA·KRIM '2021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 발표

한국교회는 2021년 12월 현재 167개국에 2만22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선교 환경이 어려워져 한국에 귀국해 대기 중인 선교사도 2707명이나 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23일 서울 동작구 KWMA 대회의실과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227개다.

선교협의체인 KWMA와 연구기관인 KRIM은 2019년 한국선교현황 단일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확한 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장기선교사의 개념도 재정립했다. 장기선교사는 타 문화권에서 2년 이상 계획을 세워 선교사역하는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 국적의 장기선교사는 2만2210명이었고 파송국가는 167개국이었다. 단기선교

사는 402명, 외국 국적의 국제선교사는 929명이었다.

장기선교사의 고령화는 심화됐다. 60대는 4717명으로 지난해(4258명)보다 늘었고 전체 비중도 21.24%로 지난해(19.13%)보다 2.11% 포인트 증가했다. 70대 선교사 역시 648명으로 전년도보다 숫자와 비중 모두 늘었다. 반대로 30-50대 선교사는 숫자와 비중이 일제히 하락했다.

홍현철 한국선교연구원장은 "연구원이 1994년 발표했다를 당시 30대 선교사 비중은 50%를 넘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7.44%에 불과하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연령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만큼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코로나 등으로 파생된 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 추가 조사도 실시했다. 지난해 귀국해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임시 귀국 장기선교사는 152개 단체 응답기준으로 2707명이었다. 국내에 정착해 사역을 전환한 선교사는 제외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귀국한 비율이 34.3%였고, 치안비자거절 추방 등 사역지 환경의 부덕이한 이유로 한국에 온 비율은 16.5%였다. 이 둘을 합하면 50.8%다. 2명 중 1명은 외부환경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온 셈이다. 나머지 49.2%는 정기 안식년이나 건강모금 방문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다.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 참가자도 감소했다. 파송 훈련을 실행한 단체는 2020년과 지난해 모두 35개였지만 참가자수는 676명에서 598명으로 줄었다. 반면 정기적인 선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늘었다. 지난해 정기적인 선교 교육에 27개 단체 1835명이 참석했다면 올해는 29개 단체 2711명이 교육을 받았다.

홍 원장은 "KWMA와 KRIM이 협약을 맺고 두 번째 보고인데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선교단체별 통계의 부재를 경험했는데 단체와 교단의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감 11개 연회 감독선거 '9월 24일'

총회선관위, 결과조작우려 등 지적...전자투표 양기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11개 연회 수장을 선출하는 감독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22일 기감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는 토요일인 오는 9월 24일 실시된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일을 이날로 잠정 결정했으나 상임위원회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화요일인 9월 27일로 변경했었다. 하지만 결국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일은 24일로 최종 확정됐다.

투표일을 둘러싼 소동이 빚어진 배경에는 전자투표 시행과 관련, 선관위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감은 비용 절감과 코로나19 등을 감

안해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을 토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이유도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자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직접투표나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이가 많은 유권자의 경우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선관위원장인 최승호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감리교단의 금권선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더 큰 신뢰를 받는 교단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5일과 28일 가능하며 선관위는 심의를 통해 선거일 150일 전인 4월 27일까지 각 연회 감독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 명부는 투표를 1개월 앞둔 8월 25일 전에 확정된다. 기감은 지난해 입법회의를 통해 이번 감독 선거부터 선거권자 규모를 과거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래목회포럼 "국가·민족에 헌신" 3·1절 메시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올해 103주년을 맞은 3·1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을 이어받아 국가와 민족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메시지에서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은 오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잔잔한 울림을 준다"

며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곧 미래 대한민국의 자랑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한국교회는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목회포럼은 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온갖

짓누름과 불평등, 비리와 부정부패, 불공정한 사회를 철폐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해서는 "여론이나 선거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투표로서 동참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겸손한 일꾼 나오도록 기도하자"

국민비전클럽, 대선 앞두고 첫 월례예배, 이영훈 목사 설교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국민비전클럽(회장 박성철 장로)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다.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은 기독교계에 대한 주요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국민비전클럽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올해 첫 월례예배를 드렸다. 교계 및 정·재계 지도자와 성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미가 6:8)'를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정의롭고 겸손하며, 공평과 자비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인간은 교만 덩어리다.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쥔 뒤에는 오만해지고, 국민을 무시하고 고통을 안겨 준다"고 지적하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나라(잠언 18:12)"는 말씀을 명

심하자"고 권면했다. 설교에 이어 대통령 선거를 위해(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코로나 종식과 대한민국을 위해(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김원광 예정합신 총회장)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대표 기도는 배광식 예정합동 총회장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대 대선 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계 현안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과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이 법이 자칫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한 뒤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독교계가 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제안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

"그리스도인이 공명선거·투표 참여 앞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선관위 캠페인, 한교총·CCC도 가세

코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불리며 진흥당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엔 기독교 신자들도 이 혼돈 속에 뛰어들어 분열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부터 공명선거에 나서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번 대선 기간 '투표참여·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앞서 전국 시·도·군 교회에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발송하며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22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

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등 전국의 성시화운동본부가 각 지역교회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캠페인 동참을 표명했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도 가세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유럽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인 기독교총연합회 등 해외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단체 '카톡방' 등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 글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곳곳에서 횡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기독교인부터 공직선거법을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람을 잃지 말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이 먼저 사람을 얻는 선거 활동을 펼치자"고 덧붙였다.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은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를 필두로 지역교회들은 '참여 공명 화합',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등의 표어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의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김상복 대표회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자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사명이 있다"며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헌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사람, 반대자들까지 품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절대 다수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믿는 시민들이 먼저 나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등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 세워 다음세대 키운다

예정합동 다음세대부흥본부 발대식... '스파크소리' 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본격적인 다음세대 부흥 운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스말로그'(Smart+Analogue) 교사대학을 세우고 '스파크소리'(SPARK-3·Scripture·Pray·Action·Revival·Kingdom of God)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예정합동 총회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중앙 및 지역위원 위촉식과 발대식을 갖고 스파크소리 교사대학을 통한 스파크소리 운동 확산 계획을 밝혔다. 스파로그 교사대학은 온라

인교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이며, 스파크소리 운동은 다음세대가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3차례 기도하며 1개의 영어 성경을 외우는 운동이다.

부총회장 권순용 목사는 비전설명회에서 "팀 켈러 뉴욕 리디머교회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 신학 전략 운동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소개했다. 총회는 지역별로 스파로그 대학을 세우고 5월부터 7주 과정

의 세미나를 운영한다.

커리큘럼은 개혁주의 신학과 교사교육, 교사의 사명론, 다음세대 공감과 돌봄 사역, 스파로그 소그룹, 성경교사로서 부모론, 아동청소년 발달상담학, 개척전도론 등이다. 강사진은 총신대 등 대학교수, 기독교 세계관 교수, 현장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는 연 2회 진행된다. 권 목사는 총회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장을 맡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다음세대 침체"라며 "총회는 은혜로운동행기도로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총회다음세대부흥운동을 통해 부흥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 남짓한 기독교인이 3·1 운동 이끌어 복음 회복해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자"

한교총, 한소망교회서 3·1절 기념예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27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서 3·1운동 103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드렸다. 강창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고신 총회장은 설교에서 "1%가 조금 넘는 기독교인이 1919년 3·1만세운동을 이끌었다"면서 "올해를 한국교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무장해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자"고 권했다. 참석자들은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 세계선교'를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한소망교회 공연팀은 창작극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무대에 올려 3·1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념했다. 참

석자들은 예배 말미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등 만세를 외쳤고 이어 애국가를 불렀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위대한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의 역사를 기념하자"며 "모든 교회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걸 자제하고 복음의 중심을 지키며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지하자"고 밝혔다.

"무속·신천지설 수그러들 것"

목사 777명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 선언

전국 개신교 목사 777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독교 목사 지지선언식을 열고 강요섭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성규 시흥광명교회 담임목사, 이사열 충청 열매교회 담임목사, 정미후 서울선진교회 목사, 조은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목사 등 전국 초교파 목사 777명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 아래서 한국 교회는 137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를 겪었다"며 "전국 각 지역 목사 777명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거짓이 참을 이기려 하고 조작과 차별금지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와 선교의 자유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성경과 사회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정책은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동참한 조은찬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시장경제 추구, 한미동맹강화, 차별금지법 폐지,

동성애 반대 등을 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지선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

퀵스장로교회 설립...

(10면에서 계속)

선교현장이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예배는 중국어찬양대의 서창에 이어 헨위지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 송요한 목사(러시아권 담당), 찬양(찬양대), 말씀 김성규 목사, 48주년기념영상, 화답찬양 글로리아시우즈, 관리직원 은퇴식(정진규 집사), 임직식(김동은 안수집사), 명예권사 추대패 수여(유정은 권사 등 9명), 장학금 수여(조중등부 10

음교회, 하나님의성회 등 목자들이 교파를 떠나 참여했으며 지역도 수도권은 물론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 목사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함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제기된 윤 후보의 무속신앙 연루 의혹이나 신천지 교회 유착설이 크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명, 고등부 10명, 대학부 3명), 글짓기 발표 민혜나(고등부), 축복기도 김도현 목사(영어권 담당), 특별찬양 아이노스 오케스트라, 광고 및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7분 남짓한 48주년기념영상은 지난 48년 역사를 간단히 회고하고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셨다'는 주제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더 많이 기뻐하신다며 복음전파에 퀵스장로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작했다.

(유원정 기자)

선교의 창 (18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화염(火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1일 일간지 데일리 미러는 "푸틴의 공격으로 슬리퍼 차림의 유니콘 피자마를 입은 어린 소녀가 희생됐다"라며 "1면에 축 늘어져 있는 6세 어린 소녀의 발끝과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실었다. 어찌 이 뿐이라. 전쟁포화의 한복판은 참혹하다. 21세기, 세계가 한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는 마당에 이 무슨 비극이란 말인가? 이번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다. 화가 난다. 이유를 불문하고 침략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우크한 평원, 스텝(Steppe) 고원이 있으며 이곳을 지나가는 강이 흑해로 흘러들어간다. 인구는 Worldometer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현재 기준 43,298,824명이다. 민족 구성은 우크라이나인이 77.8%, 러시아인이 17.3%이며 고려인도 12,000명 정도 있다. 법적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

전 5000년 경 부터이다. 17세기 중반에는 이 나라 중부에 카자크 수장국이 세워져 백년 이상 러시아 차르국의 압력을 견뎠으나 결국 폴란드와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었다. 우크라이나가 근대적 독립국가의 모습을 잠시나마 갖추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도중 발생한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점공하는 과정에서였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될 때 독립

났다. 이로서 크림 공화국은 3월 18일 러시아연방에 편입되었다.

3. 우크라이나의 갈등 요소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금번 러시아의 침공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화로(火爐)를 안는 것처럼 불안한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국가"라는 지정학적 약점이다. 원래 이 나라는 1991년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한 몸체인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다. 이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중립적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냉전시절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나토의 동진정책에 대해 러시아 "목구멍에 칼을 들이 댄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내부 민족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에는 17%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친러, 반우크라이나 세력이다. 왜냐하면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와 동질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이번에 푸틴에 의해 승인된 도네츠크·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도 같은 맥락이다.

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미 늦다. 현대 전쟁은 엄밀히 말해 승자와 패자가 없다. 첨단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엄청난 후과(後果)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에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능한 전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쉬움이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30여 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독립 초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승계한 핵탄두 4천여기를 필두로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다.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와 대규모 중공업 단지 등 산업 여건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만 포기하지 않았어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핵 포기는 신생국가로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 이후 친러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혈시위 끝에 탄핵되었다. 이어서 친서방 파인 포로셴코와 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지는 과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친러 반군의 돈바스 내전이 줄을 이었다.

리를 폭파하는 작전에 지원했다. 그는 지뢰를 설치한 뒤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폭했다. 국외탈출을 거부한 대통령과 러시아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민초들의 저항은 이미 정신력의 승리를 보여준다. 세계는 그런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칼을 빼든 푸틴 정권이 뭔가 소기의 목적 없이 쉽게 물러서겠는가? 그는 이미 핵카드까지 언급하며 겁을 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서로 냉정을 찾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맺음 말

2월 25일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본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내용인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하나 안건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기도를 위해 잠시만 침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잠시 평화를 위해 도와 주십시오. 이미 숨진 이들의 영혼을 위해, 또 희생될지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목숨을 요청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동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이 땅에 평화를 깨는 어떤 도전들도 배척해야 한다. 전쟁은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최고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세계 교회가 나서야 한다. 3월, 꽃 피는 봄철에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화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jsong007@hanmail.net

**침략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살상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교회는 선지적 사명으로 이 땅의 군왕들을 선도해야 한다.**

1. 우크라이나의 일반적 상황

우크라이나(Ukraine)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다. 국토 면적은 603,700km²(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제외시:576,700km²)이다. 이는 한반도보다 약 3배 크기에 해당되며 세계에서는 44번째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는 초르노젠폴(흑토)이라 불리우는 비

리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1번의 중임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24개 주와 1개 자치공화국, 주와 같은 지위를 갖는 2개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거의 대부분 동방정교회 또는 로마가톨릭교회에 동방 전례 의례를 따르는 합동 동방 가톨릭교회 계열이다.

2.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최소 기원

을 선언하였다.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의 여파로 인한 신(新)냉전의 기류가 크림반도까지 일었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대규모 시위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되고 반러, 친서방 성향의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크림 자치정부 및 러시아계 주민들은 2014년 2월 영토 내의 공항을 장악하고 독립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러시아에 의해 장악된 크림 자치공화국은 3월 16일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독립 및 러시아 귀속 찬성이 96.77%로 나타

못한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에는 17%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친러, 반우크라이나 세력이다. 왜냐하면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와 동질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이번에 푸틴에 의해 승인된 도네츠크·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도 같은 맥락이다.

4. 우크라이나의 정치 리더십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해안과 지혜와 지략이 있어야 한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②3 고린도를 찾아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주전 8세기부터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Corinth)는 '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과 경쟁할 만큼 힘이 있고 번성했던 강력한 고대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 주(州)의 수도요 항구도시입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협(Isthmus)에 있습니다. 지협(Isthmus)이 유명해 고린도 지역 국제 운동시합인 이스트미아대회(Isthmian Game) 이름이 됩니다.

고대 헬라에는 각 도시의 신들을 위한 축제인 4개의 국제 스포츠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올림피아대회, 델포이의 피티아대회, 고린도의 이스트미아대회, 네메아의 네메아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아와 네메아는 제우스를 위한 축제였고, 이스트미아는 바다

의 신 포세이돈을, 델포이의 피티아는 아폴로를 위한 제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이스트미아대회는 달리기 시합이 유명했는데 이를 고려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 경주장 비유입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2Km 지점에 레가에움 항구가 있었

파나마 그리고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의 지형 때문에 BC 6세기에도 운하건설이 고려되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7년에 수천 명의 죄수를 동원하여 운하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19세기 프랑스의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의 도시 규모는 상당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CA대표)

이때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약 100년 동안 고린도는 거의 폐허상태로 있다가 BC 44년에 로마의 시이저(Julius Caesar) 황제가 칙령을 선포하며 로마식민지로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BC 27년에 로마총독이 고린도에

에 약 3만 명이 유대인이 있었고 고린도에 다수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각국의 신들과 각종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주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유적들은 당시 웅장한 신전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아폴로 신전의 7개 기둥들과 옥타비아 누스 황제신전 기둥들이 그 시절의 섬세한 건축술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전 유물은 고린도의 경제적 상황과 건축술을 포함한 문화의 발달을 엿보게 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들에

신 '아프로디테(비너스)여신의 숭배자들은 종교행사로 매음을 했습니다. 매음이 종교행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은 매음에 종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매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종교적 음행이 고린도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적 타락은 고대 여러 문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은 성적 부도덕(immorality)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Corinthian)'라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고린도의 문화였고, 이런 도시의 문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교회 윤리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이 말한다'라는 말은 '말이 유창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린도 사역이나 고린도 전후서는 1세기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살펴볼수록 섬세한 문화적 감각을 가진 사도 바울에 감탄합니다. 아울러 고린도 현장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도전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풍요, 화려, 타락으로 특징되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chap1207@hotmail.com

그리스로마시대 대표적 국제도시, 여사제 매음으로 성적타락 극심 고린도 전후서엔 바울의 섬세한 문화적 감각 투영돼

고, 동쪽으로는 7Km지점에 겐그리아 항구(롬16:1)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상업적, 군사적 거점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무역상들이 고린도를 통해 무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에즈,

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아테네의 8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문화도시였습니다. 건축술과 수사학은 아테네를 능가했습니다. 학문, 종교, 문화, 무역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가 된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시대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의 뭉미우스(Lucius Mummius) 장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부임함으로 고린도가 아가야(Achaia) 지역의 행정수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방문할 즈음 고린도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여 국제도시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 시민이 20만이고 노예가 50만이 거주하는 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인 고린도에는 헬라-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는 수시로 제물이 있는 제사가 있었고 제물로 사용된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는 비교적 싼 값에 유통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애용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은 실존적인 삶의 문제였고 자연히 고린도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12개의 신전 중에 사랑의 여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더지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생명은 생명으로(출21:23-25)찬266장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보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약자(弱者)보호법'입니다. 약자는 늘 손해를 보는 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이 구제받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출21:23)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그 죄의 삯인 사망'(롬6:23)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사망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벧전2:24).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사53: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생명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화 은삼십(출21:32)찬295장

소가 만일 납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의 임자는 만일 종의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보상의 액수는 '은삼십세겔'입니다. '은삼십세겔'은 종의 몸값입니다. '은삼십'으로 보상을 강요한 호세아 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매음굴에서 구출하면서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호멜만'을 고멜의 몸값으로 지불

합니다(호3:2). 호세아가 지불한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호멜만은 은삼십의 가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리셨습니다(마26:15). 이것은 예수님의 몸값이 아니라 결국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몸값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므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롬6:18)으로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가 됩시다.

수 무교절의 은혜(출23:14-15)찬265장

이스라엘백성이 지켜야할 가장 큰 3가지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이레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사람과 짐승을 불문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년 된 흙 없는 수양을 잡고 그 피

를 현관문의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집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Passover)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에 '따뜻히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듯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 맥추절의 은혜(출23:16)찬197장

맥추절은 보리 혹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부터 칠칠일 즉 50일째 되는 날(3월6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부터 50(오순)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교절(1월15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은 3개월째 되는 날(3월1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

나님을 보았고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 그대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강림사건(행2장)이 일어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맥추절(오순절)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금 수장절의 은혜(출23:16)찬526장

수장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의 절기입니다. 또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부터 이레 동안 성막을 지을 재료를 백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

입니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수이십니다. 오늘도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안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토 하나님의 당부(출23:23-25)찬546장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출2:23).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

다. 가나안의 문화는 '음란'으로 대표됩니다(레18:6-23).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우리와 자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거룩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참된 양식과 생수이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교회음악 이야기(9)



윤임상 교수
(월디자인대학교학원)

사순절과 오 거룩하신 주님 (Lent and O Sacred Head, Now Wounded)

서양음악사를 보면 바로크(Baroque) 시기(1600-1750)가 되면서 극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대표적인 장르로 오페라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페라는 1년 내내 극장가를 달구며 청중들을 매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페라들이 연주되어지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6주간, 그리고 대강절 4주간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극장가에서는 세속음악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각각 수난음악이나 오라토리오를 연주하게 됩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표적인 오페라 연주단체는 LA Opera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에 이 오페라단에서는 바흐의 마태수난곡(Matthew Passion by J.S Bach 1685-1750)을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Lent)은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 앵글로색슨어 "lencten"에서 유래한 말로 길이(length)를 의미합니다. AD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당시 마틴루터의 음악을 전승한 독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스 레오 히슬러(1564-1612)가 만들었던 사랑의 노래(Mein G'müt ist ist mir verwirret)에 이 가사를 넣어 루터 찬송으로 처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 가사를 사용해서 작곡되었던 것을 교회 가사를 집어넣어 새롭게 교회음악으로 바뀌어진 음악을 콘트라팍툼(Contrafactum)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이후 독일의 루터파 작곡가들인 디트리히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나 요한 세베스찬 바흐(J.S Bach)에 의해 수난음악에 코랄로 사용하였고,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이 그의 대표작 '오라토리오 엘리야(Oratorio Elijah)'에 이 코랄을 사용하게 되어 더 유명한 곡이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찬송가로 불리게 된 것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인 제임스 알렉산더(James W. Alexander, 1804-1859)가 영어로 번역해 찬송가로 만들어서 불려지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콘트라팍툼(Contrafactum). 주님과과는 아무

사순절, 대강절 기간엔 극장가 오페라 공연 멈춰 "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며 정의 바로 세우고파

서 부활주일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공생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며 부활주일을 전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40일의 시작이 수요일이 되는데 그것이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 금식 그리고 기부와 자선 등 세 가지 중요 사항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조망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찬송은 "오 거룩하신 주님(O Sacred Head, Now Wounded)"입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음악으로 표현한 찬송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세기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수도사라고 불리는 베르나르 드 클레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가 요한복음 19:2-3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말씀을 가지고 1153년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표현한 것이 근원입니다.

이것을 루터파 목사님인 폴 게르하르트(Paul Gerhardt 1607-1676)가 1656년 베르나르의 시를

상관이 없는 세속적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사를 바꾸어 표현하니 그 본질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1873-1889년 만 16년을 하와이에 있는 몰로이카섬에서 나병환자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했던 벨기에 출신의 조셉 데미안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1884년 어느 주일아침 그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뜨거운 물을 먹으며 컵에 붓다가 실수로 자신의 발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역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씻으며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의 설교시간이 되어 그가 평소 애용했던 찬송 "나의 동료 신자 여러분"이란 말에서 말을 바꾸어 "나의 동료 나환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들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년을 나병환자로 지내며 그 나병환자촌에서 사역을 하다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셉 선교사의 삶을 불쌍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펴기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작년 7월말 나이로비의 봉쇄령과 국제선 비행기 운항이 풀려 8월에 이애경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서 미국에 들어가 안식월로 있었는데, 조금 회복되어 1월 19일에 다시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케냐는 코로나가 나아졌는데 갑자기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는 3월 26일에 레드존 카운티라 불린 나이로비와 부근의 4개 카운티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5개 카운티에 속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나이로비에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속하지 않은

다. 그리고 3월 11일에 신학교 일반과정, 특별과정, 무이기 분교 학생들과 함께 졸업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건강이 회복되면 졸업식에 참석하고 초등학교 예배당 헌당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신학교, 선교사 훈련학교 졸업할 분들과 계속 공부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그동안 교장으로 수고했던 Francisca Muinde 선생님이 교장직을 사임하고 이사회에서 Benard Mukila 선생님을 새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Benard 선생님이 교장직과 5학년 선생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유치원에 3선생님, 1-5학년까지 한 명씩 총 8명의 선생님들이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학교 채플 건축은 유리창까지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페인트와 헌당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케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작년 4월말 호흡곤란이 있어서 한국인 의사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심부전증이 의심되지만 x-ray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는 말에 나이로비에 나가 x-ray를 찍어보니 폐렴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폐렴에

좋은 치료약을 먹고 폐렴이 나았습니다. 그러던 중 8월말에 폐렴이 재발하였고 다시 x-ray를 찍어보니 한쪽 폐에 상처가 있고 한쪽 폐에는 물이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먹었던 약을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똑같은 약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5일간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다시 5월에 먹었던 약을 사서 다시 5일 동안 먹었으나 차도가 없어서 케냐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아보니 post covid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여러 가지를 먹었습니다만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리다간 사역은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딸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부탁하였더니 3주 일정으로 케냐에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보니 아빠의 건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빠, 엄마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겠다고 휴가를 연기하고 3주 간을 더 있다가 10월 25일 같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카운티는 도로를 막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백신도 맞고 확진자가 줄어들어 5월 1일에 봉쇄령이 풀려 교회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전에 만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싱가 신학교, 선교사 훈련학교

2021-2022년도 첫 학기에 일반과정 1학년 5명, 2학년 10명, 3학년 4명 모두 19명이고, 특별과정에는 1학년 11명, 2학년 11명, 3학년 20명 모두 42명이어서 마싱가 학교의 신학생만 64명입니다. 저는 5월 학기에 1학년의 4복음서와 2학년의 구약개론 2(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숨이 차서 오랜 시간 말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는 다음주(2월 17일)에 와서 4과목 시험을 치르고 남은 4과목은 강의 없이 책을 나누어주고 숙제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뉴저지말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24)



4. 장애인 선교인가? 장애인 복지인가?

일반적으로 선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복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너무 정의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편협한 이해이다. 그 좁은 이해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구원은 “고통의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신적인 생명(영생)을 영혼과 육체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즉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알 때 예수

를 납치하고 또 목사와 청년 성도를 죽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봉사(복지)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복지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말로 전하고 책상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선교라고 하는 편

을 납치하고 또 목사와 청년 성도를 죽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봉사(복지)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고통(죄)과 육신의 고통(병, 장애, 가난, 사회적 차별 등) 두 가지 모두를 구원하는 포괄적인 복음이다.



뉴저지말알 방과후 나들이

선교와 복지, “하나님나라의 복음” 관점에서 포괄적 이해해야 장애인 위한 제도와 법 바꾸는 것도 장애인 복지의 한 부분

님은 영혼만 고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복지에 힘쓰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지 선교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복지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주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로 이미 주권의 전이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라고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고난을 해결해주는 것 또한 행동으로 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를 갔던 샘물교회 성도들이 좋은 예이다. 그들은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복지)하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의 이름도 샘물선교단인 애이고 “샘물봉사단”이었다. 그런데 애 이슬람교 탈레반들은 그들이 선교행위를 했다고 그들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말로 하는 선교뿐 아니라 크리스천의 복지 행위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도 한다.

현대는 말이 너무 무성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는 선교보다는 행동으로(복지) 예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말로 전도하는 것을 공격적 선교방법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말로 하는 선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복지를 선교가 아니다 라고 평가절하하지 말자는 것이다. 오히려 이 시대는 복지를 통한 선교야말로 효과적인 선교 방법일 수 있다. 예수님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복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이고, 육체적 복지를 힘쓰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사용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대개 예수의 메시아 되심, 아들 되심, 의롭다함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이론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가 완성했다고 하는 논리적이며 이론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결국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와 복지를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miju92@gmail.com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2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Deuteronomy 6 : 1 - 9
 - 2) NT Exegesis Text : 2 Corinthians 5 : 11 - 21
 - 3) Thesis Topic : Pastoral Ministry Centered on Reformed Worship in the Pandemic Era.
 - 4) Sermon Text : O.T- Psalms 95 : 1 - 8, N.T- Romans 12 : 1 - 2 (choose one)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0-13,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9(Mon)-10(Tue), 2022
- b) Place :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Vice Moderator Rev. Timothy Hong)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WG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9-10, 2022) through Rev. Kisung Son.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제출처

Rev. Kisung Son
Address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Cell : (703) 725-6468 E-mail :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kapcpastor@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밀당' 대신 진지하게 미래의 짝 찾는다

BBC, 코로나시대가 변화시킨 MZ세대의 데이트 방식 소개

데이트 앱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다양하리라고 본다. 미래의 동반자? 동화 같은 로맨스? 아니면 그저 썸 타기?

젊은 층 사이에서는 데이트를 하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오해를 없애는 움직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하드볼링

(hardballing)'이라고 하는데, 허튼짓을 하지 않는 데이트 접근 방식을 뜻한다. 첫 데이트 전에 의도와 기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BBC는 발렌타인데이를 지나며 젊은 세대의 달라진 데이트 방식 즉 밀당 대신 솔직하게 미래의 짝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보도한다('I'm not pushed' These days, the MZ generation's dating style).



팻캐스트 '매치메이커'와 '페어드바이더피플' 제작자인 락슈미 렌가라잔은 팬데믹이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고 삶을 재정비하고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소중하고 짧다. 정의하기 어려운 관계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 팬데믹 속에서 맞는 두 번째 밸런타인데이가 지나갔다. 데이트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혼모의 외동딸로 자란 메리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재정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25살 메리(가명)에게 케냐 나이로비에서 했던 데이트는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테크 회사에서 제품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BBC에 "그 남자는 내 직업적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위축되기

를 바랐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 남자와 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저는 분명 안정성을 따져볼 겁니다." 물론 메리가 늘 이랬던 건 아니다.

2년 동안 그는 학업 도중 만난 한 사업가와 연애를 했다. 그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

였다. 하지만 메리는 자신이 더 이상 "관계에서 큰 희생을 감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 남자는 안정된 직업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했다.

메리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사업가와 데이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

하드볼링(hardballing) 허튼짓 하지 않는 데이트 접근방식 격동 시기 보낸 후 통제력 갖게 되는 현상...자신 보호방법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제 연인이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미혼모의 외동딸로 자란 메리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재정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연인이 갖추어야 할 '4가지 기본'도 만들었다. 안정적

인 직업, 믿음, 핵심 가치, 가족의 중요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첫 데이트에서 남자들을 만나면 이 기본사항을 따져보기 때문에 데이트를 계속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오웬 무어 역시 데이트가 어렵다고 느꼈다. 그는 BBC에 "도시

의 일시적인 특성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전에 오웬은 온라인 데이트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앱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27살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무어는 "의도가 명확하고 정직한 데이트를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어색하지 않게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누가 데이트가 쉽다고 했는가. 관계 전문가인 락슈미 렌가라잔은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요즘 세상에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

회용 데이트 같은 문화를 맞본 후, 사람들은 이를 상쇄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한 보다 솔직한 접근법인 '하드볼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오웬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은 불편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그냥 무시하거나 쉽게 차단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나보다)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했다.

오웬에게 데이트란 '연결이 이어져 관계로 바뀔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는 회색이 많기에 모든 걸 흑과 백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짝에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 번째 데이트가 없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락슈미 렌가라잔은 하드볼링이란 결론적으로 격동의 몇 년을 보낸 후 사람들이 통제력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진정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이 설명 없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일도 그중 하나다.

렌가라잔은 "디지털 시대 버려지는 관계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데이트 문화가 누군가를 천천히 알아가는 것보다 숫자 게임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

책 소개



저자 윤승준 선교사

"구글 드라이브 완전정복"

재이생이라는 스마트폰 사용과 IT 정보를 카툰으로 배달하는 전자잡지로 유명한 '재이생' 대표 윤승준 선교사가 '구글 드라이브 완전정복'을 발간했다. IT란 information Technology의 첫 머리글로 정보기술의

미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정보는 타인과 공유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찾기 쉽게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정보관리가 미흡함을 감안해 분서를 출간했다. 분서는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구글 드라이브의 특징', '구글 드라이브에 무엇을 저장

하는가?', '스마트폰에서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기', '스마트폰에서 구글 포토', '스마트 폰에서 구글문서 사용하기', '컴퓨터에서 구글 문서 사용하기', '구글 문서의 공유', '기업에서 구글 드

추출하기, 픽픽 프로그램, 문서에 사인 넣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한 부록을 첨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 가격은 두 권에 우송비 포함 25달러이며, 한 권은 소중한 분에게 나누라고 두 권을 묶어 판매한다. 더 많이 구입할 때 권당 10달러를 추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909)971-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 상세히 설명한 부록 첨부해

라이브사용, '나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마치는 말'로 구성됐고, '사진에서 글자

책은 총 92페이지로 두껍지 않고 또 아주 큰 글씨로 읽기 편하게 전페이지가 컬러로 편집됐다.

7720 윤승준 선교사를 카툰에 등록해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교회음악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단순한 진리조차 많이 왜곡되고 희미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Timothy Keller 1950-) 목사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뒤편 변질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감정까지도 뒤틀어 놓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일에서 정의가 변질되고 비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신 수난의 주님을 그린 성자 베르나르 드 클레보의 "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구겨지고 비틀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전했

던 기도, 금식, 기부와 자선 등에 힘쓰고 싶습니다. iyooun@wmu.edu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11월 15일 Temple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심부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중에 3군데가 막혀있는데 하나는 연젠기는 모르지만 가벼운 심

장마비가 와서 완전히 막혀있고 하나는 75%, 하나는 50%가 막혀 있어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검사를 하니 양성으로 나와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 3일간 있었는데 그곳에 계속 있으면 치료는 고사하고 꼭 죽을 것만 같아 어거지를 부려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간, 콩팥 모두 정상이고 가슴에 통증도 없고 막혀 있는 혈관에도 비교적 피가 잘 흐르고 있어서 시술 대신 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1년 정도는 아주 조심

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예경 선교사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흉통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마침가 신학교 학생들, 교수들, 선교사 훈련대학 학생들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

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위해

△이샤야 이예경 선교사의 치료와 건강, 그리고 가족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월 이샤야, 이예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릎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과목)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펜데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원고: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를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9일(월)-10(화)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규표 목사 시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경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9-10일)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ca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손기성 목사